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소식

인천

김주희
인천일보 기자

문화예술 온라인 자문위원 제도 실시

인천시는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업을 벌이기 위해 '문화예술 온라인 자문위원' 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월 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 온라인 자문위원 50명을 뽑았다. 온라인 자문위원은 인천시의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관련 정책 발의, 문화예술 시책과 추진사업 평가 등을 하게 된다.

인천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문화예술 온라인 자문위원은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과 대등한 소통 관계를 유지하며 예술현장의 구체적인 의견과 자문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2006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육성지원금 사업 확정

내년도 인천시 문화예술육성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10월부터 5차례에 걸친, 릴레이 포럼과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2006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육성지원금 사업'을 확정했다. 11월 30일 각 분야별로 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인천문화재단이 확정된 사업안에 따르면 신청 대상이 개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되는 등 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개인은 5년 이상, 단체는 3년 이상 인천에서 거주·활동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사업이 일반 시민에게까지 넓어졌다. 시민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동호회나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소액 다건 형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후 점검 방식이 개선된다. 감시 성격의 시민모니터링 제도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로 제공되는 한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컨설팅 성격의 전문가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한다. 지원영역을 크게 '전문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사업'과 '시민 문화활동 활성화사업' 등 2개 분야로 나눠 지원 통합 및 전문화를 꾀했다. 인천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에 대한 심의도 전문 예술인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과 예술성을, 시민 문화활동 영역은 시민 참여도에 중점을 두게 된다"고 밝혔다. (문의 032-433-1710)

아홉 권째 인천학신서 『인천공부』 발간

도서출판 다인아트가 아홉 권째 인천학신서로 『인천공부』를 내놨다. 이 책의 저자는 인천학연구원 김창수 상임연구위원. 한국 근대의 진양지를 파헤쳐보겠다는 호기심에서, 그리고 인천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인천에 대한 공부를 정리한 것이다. 지난 10년 간 인천학을 연구하면서 저자가 써온 글 40여 편을 모았다. 왜 저자가 인천학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 「인천학으로 가는 길」, 전공인 문학평론가로서 그가 바라본 「인천의 문인들」, 인천의 문화를 자장면에 비유한 그의 독특한 문화시선을 느낄 수 있는 「인천의 문화콘텐츠」 등으로 구성됐다. '인천 문화의 현장'을 누비며 쓴 글과 '우리 시대의 문화코드'를 해

석한 글도 함께 실었다.

저자는 경상도 안동 출생으로 인하대를 나와 1987년 '문학사상' 신춘문예에 평론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고려대, 인하대, 평택대 등 대학에서 현대시론과 문예비평론, 문장론 등을 강의했다. 현재는 인천학연구원에서 상임연구원으로 있다.

21세기로 열린 창, 인천미술 기획전

인천문화재단이 출범 첫돌을 맞아 지난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인천종합문화회관 전시실에서 <21세기로 열린 창, 인천미술> 기획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는 근현대 인천미술에 비평적 조명을 통해 지금의 인천미술을 냉정하게 짚어보고, 미래의 인천미술을 예견해 보는 자리다. 국립 현대미술관이 선정하는 '2005 올해의 작가' 중앙대 이종구 교수와 '2006 올해의 작가' 정현 홍익대 겸임교수 등 그동안 인천을 연고로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 25명의 작품을 선보였다.

서양화 부문에서는 강광, 강하진, 고진한, 공성훈, 김경인, 박동진, 박인우, 박충의, 오원배, 이강화, 이종구, 장명규, 정용일, 정정엽, 최효원, 하관식 씨가 참가했다. 한국화 부문은 김병중, 양창석, 이의재, 최병국 씨 등이, 조각 부문에서는 오상일, 이창림, 정현 씨 등이 작품을 내놨다. 영상·설치 부문에서는 이탈, 양승수 씨 등이 참여했다.

'인천 미술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열려

인천문화재단이 지난 11월 4일 오후 3시 인천종합문화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연 '인천 미술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인천시립미술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이날 세미나는 인천문화재단이 마

련한 기획전 <21세기로 열린 창, 인천미술전>의 부대행사로 열렸다.

인천문화재단 이현식 사무처장은 "인천시립미술관은 인천 미술의 아카이브(정보창고) 이면서, 새로운 인천문화를 만들어가는 전위의 산실"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최근 2007년 착공을 목표로, 2006년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계획했으나,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된 상태다.

2005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2005 주안미디어문화축제(JuMF, www.jumf.or.kr)'가 열렸다. 지난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주안역과 주안로 지하사가 일대에서 펼쳐진 JuMF는 '사람 속에서 숨쉬다'를 주제로 미디어아트전시 <온앤온 溫&ON>과 예술영화제 <프랑스 실험영화의 도전> 등 두 축으로 진행됐다. 미디어아트 전시회는 주안역을 출발, 청소년미디어센터(CAMF)를 둘러 옛 시민회관 쉼터와 주안로 지하사로 이어지는 공간에서 벌어졌다. 차갑고 어렵게만 여겨지는 '미디어'의 따뜻하고 친근한 면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였다.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당신이 있어……다행이다'가 축제기간 동안 진행됐다. 관객들은 각종 사진기를 이용해 찍은 사진을 편지글과 함께 전시했다.

온라인에서는 블로그전 <블로그, 이름을 불러주다(blog1010.egloos.com)>가 벌어졌다. 블로그와 모바일 상에서 구현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작가들이 네티즌과 함께 블로그를 꾸몄다.

예술영화제 <프랑스 실험영화의 도전>은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주안 소재 멀티플래스 영화관 '맥나인'에서 진행됐다.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프랑스 실험영화를 상영하고, 프랑스 영화 감독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파트릭 보카노프스키의 <천사(L'Ange de Patrick Bokanowski)>가 개막작으로, 또 한국에서 최초로 상영되는 조나스 메카스의 <월든(WALDEN by Jonas Mekas)> 등이 관객과 만났다.

박덕상 첫 개인 발표회 '출판의 신명, 그 뿌리'

인천의 발림무용단 대표를 맡고 있는 출판박덕상 씨가 8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첫 번째 개인 발표회 '출판의 신명, 그 뿌리'를 공연했다. 박 대표는 인천시립무용단 출신으로, 동성제악 오리리화창품 예술단장을 역임하고 현재 창무회 지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 6월부터 발림무용단 대표를 맡았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61호 은울탈춤 이수자이며,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전수자다.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비롯해, 동아공쿠를 금상, 장애인 문화예술진흥개발원 공로상 등을 수상한 남성무용수로 출중한 기량을 인정받고 있다.

<제41회 인천시 미술대전> 수상작 선정

한국미술협회 인천시지회는 <제41회 인천시 미술대전> 대상 수상작으로 한국화 부문 김민자의 <금강산의 계류>, 서양화 부문 김인덕의 <잔해-Ⅱ I>, 문인화 부문 권경자의 <소나무> 등을 각각 선정했다. 이밖에도 우수상 5명을 비롯해 특선과 입선 등 모두 221명의 입상자를 발표했다. 인천미술협회는 지난 10월 24일과 25일, 11월 4일과 5일 작품을 공모, 모두 350작품이 접수됐다. 이번 인천 미술대전의 심사를 맡은 오석환 심사위원장 "예년보다 출품수가 늘었으며 작품의 수준도 높아져서 출품 작가들의 제작에 대한 열과 성의를 엿볼 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인천지역 작가들의 일본 방문

한·일 우정의 해를 맞아 인천지역 작가들의 일본 방문이 줄을 이었다. 중견사진작가 최병관 씨가 지난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아오모리현 핫코다마루 다목적 홀에서 <한반도 휴전선 155마일의 비경> 사진전을 열었다. 최 작가는 비무장지대의 사계를 담아 온 사진작가로 유명하다. 지난해 4월에는 전세계 유명 사진작가에게만 문호를 개방하는 일본 동경사진미술관 초청으로 휴전선의 자연을 담은 사진 200여 점을 전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이번에 다시 일본을 찾게 된 것. 특히 울 한·일 우정의 해와 인천·아오모리

항공편 취항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다. 아오모리현과 아오모리시가 공동 주최하고, 아오모리현 한일친선협의회 연합회(회장 카후쿠 요시사다)가 주관했다.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상화가 전문영 씨도 지난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오코하마에 있는 수평선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치렀다. 지난달 신세계 갤러리에서 연 개인전 <삶의 언저리>에서 선보인 작품 20여 점을 전시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자연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이다. 작가는 사물에 대한 일정한 틀이나 고정 관념을 벗고, 당시 느낌을 확폭에 담으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미술 초대·추천 작가전

인천시 미술초대작가회(이사장·김재열)가 그동안의 앙금을 털고, 새로운 마음으로 전시회를 치렀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인천종합문화회관 대·중 전시실에서 열린 <인천시 미술 초대·추천 작가전>은 지난해 양분 상태까지 가며 심한 내용을 겪은 초대작가회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연 첫 전시회다. 참여 작가만 무려 150여 명에 이른다. 초대·추천작가회는 지난 1981년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해마다 초대작가를 선정해 작품을 전시해왔다.

초대작가는 20년 이상 인천에서 창작 활동한 중견작가나, 인천시 미술대전을 포함한 각종 공모전에서 특선 이상으로 4회 이상 입상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내 원로 작가들이 심사위원으로 나서 초대작가전 참여 작가를 선발했다. 서양화, 한국화, 서예, 공예, 디자인, 조각, 문인화 등 7개 분야에서 150여 명의 작품이 선보였다.

경기

유재명
경인일보 기자

수원시립합창단 제100회 정기연주회

수원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민인기)의 '제100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11월 16일과 18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 아트홀과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잇따라 열렸다. 국내 시립합창단중 정기연주회 100회는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다.

이번 연주회에선 100회를 기념해 단국대 음대교수인 박정선 씨가 산·들·바다 등 한반도를 상징하는 전래 노동요(勞動謠)를 바탕으로 작곡한 '허기여 허(산의 노래)', '오 해루사(들의 노래)', '해녀의 노래(바다의 노래)'와 '정선아리리' 등 창작초연작품 4곡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1~99회까지 연주회 프로그램 중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을 골라 OB단원들과 현직 단원들이 입을 맞춘 스트리빈스키의 <시편교향곡> 등과 '주님의 기도(Pater Noster)'를 주제로 한 고전·현대합창의 만남 공연도 펼쳤다. 한양대 음대교수인 소프라노 박정원 씨와 오페라 가수로 활동 중인 테너 김남두 씨가 특별 출연해 축하곡을 들려주었다.

석봉체와 추사체의 진수

아버지격인 '석봉체'와 아들격인 '추사체'의 진수를 맞볼 수 있는 전시가 수원과 과천에서 동시에 열렸다. 한신대박물관(관장 이세영)은 석봉 한호(1543~1605)의 서거 400년을 맞아 지난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수원에 소재한 경기도문화의전당 전시장에서 <한석봉의 서예—서거 400주기 추모전>을 열었다.

'금석문(金石文)' 중심으로 선보인 전시에선 '목릉성세(穆陵盛世)'인 조선 선조시대 '석봉체'가 나타나기 이전의 조선 서예계를 이끌었던 명가들의 글씨가 새긴 비문의 탁본 작품과 석봉의 친필 글씨 및 석봉체를 한글 자색 모아서 만든 '집자비(集字碑)' 석봉의 영향을 받은 조선 후기 글씨의 탁본작품 등 50여 점이 전시됐다.

특히 조선 선조 때 문화계의 중심에서 있었던 허균의 집안과 석봉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허엽(許擘) 신도비(神道碑)와 조선 전시 4대 명필로 불렸던 양사언과 석봉의 글씨를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허엽 묘표(墓表) 등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박물관은 또 석봉체 집자비의 전모를 최초로 밝혀내고, 그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논문도 발간했다.

'석봉체 보다 250년 후에 나타난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추사체 진수를 볼 수 있는 <붓 천 자루와 벼루 열 개를 모두 닳아 없

애고—추사 작은 글씨전>이 지난 11월 11일 과천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개막했다. 과천문화원(원장 최중수)과 과천향토사연구회(회장 이정찬)가 주최·주관해 지난 11월 20일까지 문을 연 이번 전시에는 추사의 간찰(편지), 시, 산문, 그림 등 작은 글씨 124점이 전시됐다. 전시작품 중 추사가 과천에서 말년을 보낼 때 이재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의 별책 『마친십연』, 초의선사에게 보낸 편지, 그림 <미가산수(米家山水)> 등 81점이 첫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전혁립 화백 신작전

90의 나이에도 40대와 같은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는 한국적 색채화가 전혁립 화백의 신작(新作)을 선보이는 <구십, 아직은 젊다전>이 지난 11월 12일 용인시 기흥구 이영미술관(관장 김이환)에서 열렸다.

12월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김이환 이영미술관이 전혁립 화백의 천수를 기원하고, 젊은 작가들에게 그림쟁이로서의 장인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했다. 전시에는 1천호가 넘는 대작 3점 <기동사리로 보이는 한려수도>와 <한려수도>를 비롯해 320개의 목기 소반에 그린 <새 만다라>, 수채화 40점 등이 전시되고 있다. 올해 91세인 전 화백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그린 신작이다.

독특한 색감과 구상, 추상을 넘나드는 조형 의식을 토대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온 전 화백의 창작세계가 이번 신작들에도 고스란히 응축돼 있다. 웅기종기 모여 있는 어선들과 부둣가의 집들, 주변의 산들을 정감 어리게 그린 <한려수도>나 마음 속에 잠재하고 있는 형상이나 자연에서 받은 느낌을 추상적으로 변형·해체하고 재구성한 <기동 사이로 보이는 한려수도> 등이 대표적이다.

창작무용극 <새> 호평

천상병 시인의 자유로운 삶과 영혼의 세계를 세련된 몸짓을 표현한 창작무용극 <새>가 11월 11, 12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무대에 올려졌다. 이 작품은 의정부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방문화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아 의정부 무용단, 이미숙

모듬무용단과 함께 만들었다.

모두 9장으로 엮어진 이번 작품은 순수했고, 세상의 관행을 무시한 기이한 행동으로 주변인들의 마음을 때론 '따뜻하게', 때론 '애저리게' 했던 천상병 시인의 삶을 다양한 영상과 세련된 몸짓, 아름다운 무대로 간결하게 표현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작품이란 평가를 받았다.



김훈동 수원에총 회장의 잡지 창간호전

42년 동안 잡지 창간호를 수집해 온 시인이자 수필가인 김훈동 수원에총 회장의 <예술. 문화를 담는 그릇—잡지 창간호전>이 지난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수원미술전시관에서 열렸다. 평생 모아온 잡지 창간호 8천여 점 가운데 문화와 예술 관련 700여 점을 엄선해 선보인 이번 전시에선 잡지의 시대 변천사를 엿볼 수 있었다.

서울농대 재학시절 세미나 자료를 찾기 위해 찾은 잡지 창간호가 이미 폐간됐고, 국립도서관에서조차 보관치 않고 있어 그 때 받은 허탈감을 채우기 위해 잡지 창간호만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김훈동 회장은 앞으로 잡지박물관을 건립,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창간사로 본 잡지문화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강원

윤호선
강원일보 기자

2005 강원문학축전

지난 3년간 '강원문학대선집' 발간과정에서 비롯된 문학인들의 갈등을 풀고 화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백담사 만해마을이 주최한 '2005 강원문학축전'이 '소통 그리고 나눔'을 주제로 지난 11월 12, 13일 이틀간 인제군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렸다.

백담사 만해마을이 주최한 강원문학축전은 도문인협회 강원작가회의를 비롯, 도출산 출향문인단체인 강원문학회(재경강원문인회), 강원아동문학회, 강원수필문학회, 강원여성문학인회, 강원시조문학회, 강원펜클럽 등 8개 문학단체가 주관단체로 참여했다. 행사의 의도에 걸맞게 도문인협회 민족문학작가회의강원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조규영 도문인협회장, 이영춘 강원여성문학인회장, 최복형 강원시조시인협회장, 이화주 강원아동문학회장, 박종숙 강원수필문학회장 등 100여 명의 문인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첫 날인 12일 오후 5시 '문학, 인간, 생명'을 주제로 한 학술심포지엄으로 문을 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서준섭 강원대 교수가 '문학과 웰빙의 사유'를 기조발제했으며 권혁소(시인), 남진원(아동문학가), 심재상(문학평론가·관동대교수) 씨 등 3명이 주제발표자로, 김도연(소설가), 김원대(수필가), 박기동(시인), 이홍섭(시인) 씨 등 4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2005 강원문학축전'은 도내 각 문학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의미를 지녔지만 갈등의 핵심요인인 『강원문학대선집』 발간에 대해서는 애써 거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일부 젊은 문인들은 "갈등의 요지를 푸는 대화를 나누지 못해 아쉬웠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이번 '강원문학인의 밤'에서는 소리새 품바의 축하공연과 낭송송 캠프하이 어 등이 이어졌으며 이튿날인 13일에는 백담사를 방문한 문화유산담사를 가졌다.



동북아 5개국 미술전

제10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제8회 동북아지방정부 미술작품전'이 지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국립춘천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렸

다. 한국 강원도, 일본 홋토리현, 중국 지린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 투브도 미술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는 회화작품 72점이 선보였다. 지난 1999년 강원도에서 개최된 이후 6년 만에 강원도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각 국가별 미술작품의 미묘한 차이와 공통분모를 이루는 동양적 정서와 미적 감각을 동시에 접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통합서비스 정책포럼

강원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강원문화연구포럼이 주관한 문화예술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책포럼이 지난 11월 10일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열렸다. '지역에서 문화예술통합서비스는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주민통합서비스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문화통합서비스는 어떻게 가능한가?' '문화통합서비스를 위해서 문화복지사 제도 도입' '복지와 문화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형욱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옹호성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장, 김기봉 지역문화네트워크 상임대표, 변재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복지시스템과 문화시스템의 상호유기적 결합을 모색했다.

춘천인형극장 <늦가을 4색> 공연

춘천인형극장(극장장 강준택)은 지난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늦가을 4색>공연을 마련, 어린이인형극 위주로 운영돼 온 기존의 틀을 벗어나 풍성한 우리문화 공연을 펼쳤다. 우리소리 뮤지컬 극단 스테이지-티의 <인당수사랑가>를 비롯, 역동적인 총체연희 <김덕수의 다이내믹 코리아>, 전통속의 환타지 <노래극-이야기 할아버지의 이상한 집>,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알콩달콩 재미있는

우리음악> 등 4개의 공연이 잇따라 무대에 올려졌다.

양구미술인회 창립전

박수근의 고향 양구지역 미술작가들이 미술인회를 결성하고 창립전을 열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양구도서관에서 열린 양구미술인회 창립전 타이틀은 'DMZ의 작가들'. 전시회에는 회장을 맡은 김용만 씨를 비롯해 18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미술작품이 전시됐다. 김용만 회장은 "지역주민들이 현실감 있고 능동적인 시각적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미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나루' 회원전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회원으로 참여한 사진동호회 '사진나루' 제7회 회원전이 지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춘천예술마당 아트프라자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회원전의 주제는 '존재, 그 내면 속으로'. 순수사진을 추구하는 사진나루 회원들은 이번 전시회에 각자 테마로 설정한 연작을 선보여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한 미의식을 읽게 했다. 11명의 회원들이 각자 4~6점씩 출품, 모두 40여 점이 전시됐다.

충청

이현숙
충청투데이 기자

제47회 청풍명월예술제

지난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과 청주문화관, 중앙공원 등 도내일원에서 펼쳐진 제47회 청풍명월예술제는 차별화된 행사 기획으로 내용과 규모면에서 어느 해보다도 알찬 예술제로 기록됐다. 올해는 도내 축제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해외 교류행사의 폭을 넓혀 국제적인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국제행사로 위상을 다진 것은 중국 흥룡강성 문화예술계연합회 예술인과 일본 홋토리 현 서도연맹 작가들이 충북에서 처음 교류전시회를 선보여 문화와 정신의 상호이해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두 나라 단체에서

는 대표 작가들이 대거 총복을 방문해 전시 개막식에 참가하고 서예 휘호회를 여는 등 예술을 통한 '나눔'의 긍정적인 방향을 지향했다. 또 중국내몽고자치구 민속가무단이 총복을 방문해 몽고춤, 여중음독창, 마두금독주 등 전통공연을 펼쳐 국제적인 무대를 이끌어냈다. 또 올해는 연극배우협회의 뮤지컬 악극 <눈물속에 핀꽃>을 특별 초청해 순수예술 공연의 또 다른 색선화를 시도했다. 발전적인 면모를 보인 행사는 제3회 소극장 연극제다. 올해는 도내 극단을 비롯해 일본 극단 상사화가 참가해 다양한 색깔과 함께 볼거리를 제공했다.

올 예술제는 전시, 공연, 세미나, 경연대회 등 50여 가지가 펼쳐져 도민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큰 호응을 얻었으나 개선점은 남아 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라는 특정 행사로 인해 정작 총복을 대표하는 순수예술제의 개최시기에 관한 문제라든지, 일부 행사는 공예비엔날레 잔여물이 철거가 안 돼 어수선한 가운데 치러진 점이 그것이다.

청풍명월예술제가 지역에서 열리는 예술제인 만큼 총복만의 색깔과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지역의 대표적 예술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과 예술단체,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술인과의 공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청주시립예술단 11월 릴레이 공연

3개 청주시립예술단이 11월 한 달간 이색적인 정기연주회를 꾸렸다. 시립교향악단이 지난 11월 15일 브라얌스와 함께 떠나는 여행을, 시립합창단이 17일 여수시립합창단 초청 합동공연을, 시립국악단이 24일 창단 20주년 기념 음악회를 오후 7시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각각 펼쳤다.

교향악단은 차세대 지휘자인 박영민 씨가 지휘봉을 잡고, 첼로에 어미혜, 바이올린에 이경민 씨가 협연했다. 연주곡목은 브람스의 비극적 서곡인 더블 콘체르토, 교향곡 4번을 들려줬다. 합창단은 청주시립의 김정연 씨와 여수시립의 김승구 씨가 각각 지휘했다. 연주곡목은 아르헨티나의 민속음악을 사용해 만든 <클리콜라 미사>였다. 이어 제2부에서는 여수시립합창단이 세계 여러 나라의 합창

곡을 선사했다. 국악단은 '아름다운 비상'을 주제로 창단 2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마련했다. 작곡가 이경섭의 위촉곡 <방황> <겨울나라> <멋으로 사는 세상> 등이 초연돼 주목을 끌었다. 또 최근 5집 음반을 발매해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소리꾼 김용우 씨가 <임진강> <사발가> <통일 아리랑> 등을 감칠맛 나는 창법과 아름다운 가락으로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극단 새벽의 <서툰사람들>과 <늙은 도둑이야기> 공연

극단 새벽이 연극 두 편을 한 달간 연속적으로 무대에 올렸다. <서툰사람들>을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늙은 도둑이야기>를 11월 14일부터 29일까지 연극창고 새벽에서 각각 공연했다.

<서툰사람들>은 연극연출가이며 극작가, 영화감독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연극인 장진 씨의 작품이다. 현 세태의 비뚤어진 모습을 풍자한 코미디다. 현대인의 내면에 잠재한 도취된 심리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뒤범벅이 된 현실을 고발했다. <늙은 도둑이야기>는 극단 차이무 전 대표단원이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연출과 교수인 이상우 씨의 작품이다. 이 연극은 무엇보다도 현대의 정신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줬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메커니즘이 잉태하는 개인의 사고와 행위가 어떻게 왜곡되어가는가를 재현했다. 연출자 이상관 씨는 "이 두 작품은 우리 현대사의 암울했던 정치적 암흑기를 우화적으로 그린 작품"이라며 "시니컬한 사회풍자극을 통해 현 사회를 조명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최두성
매일신문 기자

전국최대 창작합창축제 대구시

전국 최대규모의 대한민국 창작합창축제가 지난 11월 2~5일 사흘 동안 대구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지난 2002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확대와 새로운 창작 합창곡을 발굴 보급하기 위해 매년 마련되고 있는 축제는 올해로 4번째. 대구시립합창단을 비롯,

천안·수원·인천·대전·광주·김제·강릉·김해·울산 등 전국의 시립합창단과 민간합창단인 코리안 챔버콤파이어 등 24개 합창단이 참가했다. 축제기간 동안 매일 6개 합창단이 작품성 있는 미발표 창작합창곡과 널리 알려진 곡들을 선곡해 관객들과 호흡을 맞췄다. 또 공연의 피날레에선 참가 합창단이 연합팀을 구성해 인간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빛어내는 하모니를 선사했다. 5일에는 '대한민국창작합창 활성화'를 위한 미래방안 제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대영박물관 대구전

전 대륙의 문명과 문화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대영박물관 대구전>이 지난 10월 25일 계명대 성서캠퍼스 행소 박물관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계명대 행소박물관 1, 2층 전시실을 8개 대륙별 주제관으로 나눠 고대메소포타미아관을 비롯한 이집트, 그리스와 로마제국, 르네상스와 이후의 시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아시아관 등 8개관이 설치됐으며 동·서양 인류 유산 335점이 선보였다.

4천 5백여 년 전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출토된 세계 최고의 수금(일종의 하프)을 비롯해 고대문명의 신비를 밝혀준 실마리를 담은 로제타스톤, 이집트 문명의 내세관을 보여주는 성인여자의 미라 및 미라관, 헬레니즘 미술의 원조가 된 그리스 조각상 등도 선보였다. 특히 다빈치와 라파엘로, 램브란트, 루벤스, 뒤러 등 르네상스 이후 근대 미술의 경향을 보여주는 천재 화가들의 작품도 함께 대구를 찾았다. 이번 전시는 대영박물관 개관 250주년 기념, 아시아 순회전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이인성 51년만의 귀향, 작고 55주기 특별전

한국 근대화단의 귀재 이인성(1912~1950) <작고 55주기 특별전>이 지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대백프라자갤러리에서 열렸다. 이인성미술상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구시, 이인성 기념사업회가 후원한 이번 전시회에는 이인성의 유작 40여 점(유화·수채화·수묵·드로잉 등)과 함께 당시 활동을 같이했던 향토회 회원(서동진·김용

조·김용준·배명학·박명조) 유작 10여 점이 함께 전시됐다.

이인성의 작품전시회는 1954년 대구 백향다방에서 유작 전시회가 있던 지 51년 만에 고향에서 마련되는 최대 규모의 행사.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2000년 서울 호암갤러리 <작고 50주기 회고전>에선 선보이지 않았던 수작들과 '경주풍경' '거리풍경' 등 미공개작이 포함됐다.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대구·경북에 산재해 있던 작품들을 발굴해 낸 것들이다.

한편 제6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로 서양화가 김홍주(60) 목원대 미술대학 교수가 선정돼 지난 11월 1일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홍익대 미대와 같은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한 김 교수는 열다섯 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갖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미술대상전 최우수 프론티어상과 프랑스 키뉴 국제 회화제 특별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예술인상에 권기호 경북대 명예교수 선정

'2005 예술인의 날' 기념식 및 경축공연이 지난 11월 15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대구예총이 주최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예술인의 날' 선포문 낭독 등 기념식과 예술인상 시상식,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과 단체를 선발해 시상하는 예술인상에는 권기호 경북대 명예교수(시인)가, 공연공로상은 연극협회 원로 서영우(연극협회) 씨, 전시공로상은 대구예총 부회장 이현호(사진협회) 씨, 특별공로상은 화성산업 이인중 회장, 단체공로상에는 풍물무형문화재 천왕메기(국악협회)가 선정됐다.

경남

강동욱
경남일보 기자

일본 극단 청년극장 <츄구> 경남순회 공연

경남예총(회장 이영환)에서 주최하는 일본 극단 청년극장의 <츄구(銃口)>공연이 지난 10월 25일과 29일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아트홀과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으며, 11월 15일에는 경남도문화회관에서 공

연을 가졌다. 1962년 일본 신극계 선구자 아카다 우자쿠와 히지카다 요시가 결성한 일본 청년 극장은 120명의 단원으로 연간 300회에 가까운 무대 공연을 거듭하며, 매년 25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은 일본의 명문 극단이다. 연극 <츄구>는 유명한 소설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야야코(三浦綾子)의 유작을 후세코이치가 각색한 작품으로 「츄구, 교사 미타모리류타의 청춘」이라는 제목으로 연극화한 작품이다. 연극 <츄구>는 1937년 '양심의 존중', '인간의 평등'에 대한 이상을 신념으로 가진 키타모리 류타가 북해도의 작은 탄광마을 초등학교에 교사로 부임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1941년에 키타모리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돌연 고등경찰서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던 중 그에게 강한 신념을 심어주었던 은사를 같은 유치장에서 만나게 된다. 그는 은사를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고민 끝에 자신의 은사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퇴직서에 서명을 하게 되고 다시 교육직에 복귀하기를 위해서 군인으로 자원해 만주로 간다. 일본이 패전을 하여 일본으로 돌아오던 중, 조선의 산중에서 독립군들에게 체포되어 처형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키타모리 아버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독립군 부대장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우연으로 살아남은 키타모리. 그가 살았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연결 고리를 통해 인생의 진실을 깨닫게 된 그는 평화와 교육이 귀중함을 가슴 깊이 느끼며 다시 일본에 돌아와 교사 길을 걸어간다. 이번 공연은 경상남도 세계 우수 문화예술공연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경남문학상 김연희 시인 수상

올해 경남문학상은 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연희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올해 출간한 시집 『뜻밖의 대답』이다. 경남문인협회(회장 이우걸)는 지난 10월 22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남문학상을 비롯한 경남문학 특별공로상과 2005년 경남문학 우수작품집상 수상자를 확정했는데, 특별공로상에는 신상철 수필가, 우수 작품집상에 이월춘 시인을 선정했다. 경남문학상 수상자인 김연희 씨의 시집 『뜻밖의 대답』은 시인이 작품을 통해

구축한 악마주의(diabolism)의 진행선상에 있으며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독자에게는 자기 환멸의 고통이지만, 그 또한 인간이 가진 욕망의 환부를 가차 없이 드러내어 고발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시적 경향의 하나로 인정되어 선정되었다. 이승훈 시인은 "그녀의 시에 나오는 성적인 이미지는 외설스러운 것 같지만 그 외설은 삶의 의미 없음과 통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 시대의 화두인 욕망을 특이한 기법으로 노래한다는 점에서 김연희의 시는 우리 시단에 하나의 새로운 미적 충격"이라고 김 시인의 시세계를 평했다.

오페라 <논개> 창원 진주 공연

경남오페라단의 창작오페라 <논개>가 지난 10월 28~29일 창원 공연에 이어 11월 1일 오후 7시 30분 경남도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됐다. 이번 창작오페라 <논개>는 총 3막 5장으로 구성됐으며 전체적인 특징을 꼽자면 현대음악과 전통음악의 색다른 조화가 돋보였다. 또한 서양적 클래식과 한국적 전통음악이 접목되어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 특히 진주 민란 때 서민층에서 널리 불려졌던 '이걸이 저걸이 갖걸이'의 리듬이 극의 중간에 삽입되어 극의 흐름을 아주 급박하게 또는 아주 흥겹게 이끌어 나가기도 했다.

1막 : 논개의 애절한 죽음에 대한 슬픔을 단숨에 어둡고 애절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마치 난장을 보는 듯 사물놀이 가락에 맞춰 아주 신명나고 다이나믹하게 풀어내었다. 지난 연희 때 만난 황진장군을 그리워하는 논개. 논개는 자신의 처지와 황진장군에 대한 사랑과 이별을 아리아로 담아내고 앞으로 닥칠 자신의 운명과 논개의 기개와 의지를 등불로 표현했다.

2막 : 처절한 긴장과 숨죽인 민중들의 절규와 왜군의 무자비함을 사실적인 군무로 형상화했다. 전쟁 중의 진주성을 표현한 2막 1장은 '이걸이 저걸이 갖걸이'에 곡의 빠른 템포를 이용해 전쟁의 긴박함과 함께 전쟁의 소용돌이로 인한 죽음과 낭간에 몸을 던지는 황진장군을 애절하게 담아내었다.

3막 : 기생의 차마를 들치기도 하는 등 왜군들의 음흉한 횡포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3막은 기생들의 진주검무를 바탕으로 논개

와 기너들의 기개와 살신성인의 의지를 전통적 춤사위와 연극적 요소를 가미해 표현했다. 또한 붉은 치마를 극대화해 왜장을 남강에 빠트린 후 자신도 몸을 던지는 논개의 장렬한 죽음을 대변했으며, 극의 마지막은 계획의 실패로 죽은 혼백들을 불러내어 함께 씻고 죽은 자들과 산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장수동 씨는 "이 작품은 시대적, 역사적 사건에 억울하게 죽은 논개라는 여인과 황진장군, 두 남녀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야기를 꼬집어내고 있다"며 "특히 기존의 오페라 형식에 뮤지컬 소재를 끌어왔으며 단지 왜군이 무자비한 반면 조선인이 불쌍하고 피해자라는 의미보다는 한 여인을 통해 그런 시대적 아픔을 풀어낸다는 의미가 작품의 전체에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2005 통영국제음악제 가을시즌 막 내리

2005 통영국제음악제 가을시즌이 지난 10월 28일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개막연주회를 시작으로 11월 6일까지 10일간 성대하게 치러졌다. 작곡가 윤이상 타계 10주기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가을시즌은 지난 3월에 열렸던 봄 시즌과 같은 '기억(memory)'을 주제로 지난 11월 6일까지 10일간 통영시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2005 통영국제음악제 가을시즌은 음악회, 심포지엄, 콩쿠르 등 크게 세 가지 주테마로 구성되어 10주기인 윤이상의 음악세계를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가을시즌은 윤이상 타계 10주기를 맞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국제 윤이상 심포지엄'이 마련되었는데, '윤이상의 창작세계와 동아시아 문화'를 주제로 윤이상의 창작세계와 업적에 대해 재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돼 더욱 눈길을 끌었다. 또한 가을시즌에 통합된 2005 경남국제음악콩쿠르는 올해 피아노부문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통영시민문화회관과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1, 2차의 본선을 거쳐 11월 4일 결선을, 다음날 5일에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입상자 콘서트를 열었다. 마지막 피날레로는 11월 6일 오후 7시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지휘자 미

로슬라브 야첵 블라쉬취크와 필하모니아 포모르스카 등이 윤이상의 1960년 관현악곡 <바라>와 1985년 작품 <교향곡 3번>등을 연주하며 10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부산 고기화 국제신문 기자

APEC 특별공연



지난 11월 12~19일에 열린 부산 APEC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에 부산 문화계가 APEC을 경축하는 큰 공연 2건을 마련했다. 부산 APEC 특별기획공연 춤극 <부산아리랑>(김은이 짓 무용단, 11~1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과 록뮤지컬 <가락국기>(부산시연극협회, 12~15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가 그것이다. <부산아리랑>은 지난 해 전국무용제에서 <벼랑끝에서>라는 작품으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부산 춤의 실력을 과시한 김은이 (동아대 무용과) 교수의 짓 무용단이 춤으로 부산을 형상화했다. 간호사였던 윤정심은 당시 부산을 홍보했던 일본·미국·러시아·중국 등 열강 남성들의 틈바구니에서 갈등하고, 애처롭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곳곳하게 자신의 삶과 사랑을 이어간다는 것이 주 내용. <부산아리랑>은 춤극답게 서사의 구조가 굵고 단순했다. 그리고 오로지 춤으로 개항 당시 새 문물을 맞이하는 부산의 풍물과 변화, 부산 민중의 삶, 열강의 면면들, 애잔한 사랑을 그려냈다. 한편 뮤지컬의 불모지인 부산에서 젊은 연출가와 배우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 <가락국기>는 고대 가야 수로왕과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의 만남과 사랑을 그린 신화를 록뮤지컬이라는 독특한 장르로 담아냈다. 부산 연

극계의 젊은 기수로 꼽히는 연출가 심문섭과 극작, 평론으로 지역 연극계에서 입지를 공고히 해 온 노장 김문홍 씨가 손을 잡아 극의 밸런스를 한층 더했다. <가락국기>는 고대 가야의 신화를 바탕으로 하지만 극의 내용이 나 형식은 지극히 현대적이다.

부산 APEC 합창 경연대회

한국합창조직위원회(위원장 도영심)가 지난 11월 11~12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부산 APEC 합창 경연대회'를 열었다. 16세 이상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합창단의 경연인 이번 대회에는 국내에서 16개 합창단 6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미국·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10개국에서 14개 팀 45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이들은 남은 시간을 이용해 부산 옹두산공원, 롯데백화점, 영광도서 등 여러 곳에서 게릴라 공연도 가져 공연장을 직접 찾지 않는 시민들에게 합창의 묘미를 선사했다. 또 12일에는 서울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들로 구성된 합창단 '노래하는 대사들(The Singing Ambassadors)'의 특별 연주회도 마련됐다. '2002 부산합창올림픽' 때 탄생해 총 27개국 대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노래하는 대사들'은 이날 APEC 회원국인 뉴질랜드를 비롯해 핀란드 헝가리 스페인 루마니아 스위스 등 17개국 대사들이 참가해 '도레미송'과 우리 민요 '도라지'를 불렀다.



대사들의 멋진 무대 매너에 11개국에서 온 합창 단원들이 박수와 환호로 화답,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주제인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가 무대에서 먼저 실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델핀 콜로에 스페인 대사는 "이번 무대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1년 내내 연습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부산영상센터 설계 공모작 확정



영화도시 부산의 숙원 사업이었던 부산영상센터 '두레라움'의 설계회사가 오스트리아의 콤 히멜브라우로 결정됐다. 부산영상센터 국제초대공모전 심사위원들은 지난 11월 10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5시간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콤 히멜브라우사의 작품을 최종 선정작으로 뽑았다. 이번 공모전은 당초 부산국제영화제(PIFF) 폐막일인 지난 10월 14일 선정작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치열한 경합이 벌어져 최종 선정을 한 달 여간 늦추었으며, 출품된 7개 작품 가운데 덴 아키텍토즈(멕시코), 콤 히멜브라우(오스트리아), 스티븐 홀(미국) 등 3개 작품이 재심사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최종 선정작으로 결정된 작품은 캔틸레버(기둥없이 상판을 얹은 구조) 공법을 택해 모든 방향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태양열 집적판을 이용하는 등 친환경적, 경제적 요소를 적극 고려했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부지에 연면적 2만 8,749㎡ 규모로 설립될 두레라움은 5,000석 규모의 야외상영장을 비롯, 1,200석 규모의 대극장 등 8개의 피프(PIFF)전용관과 회의실 미디어센터 등을 갖춘 초대형 건축물로, 오는 2009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건립에 들어간다.

부산인권문화제 열려

인권을 주제로 한 대규모 문화행사인 '2005

부산인권문화제'가 지난 11월 9~13일 부산 민주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이 문화제는 지난 2001년부터 민주공원이 열려오던 장애인인권문화제를 지난 1996~2000년 개최됐던 인권영화제와 통합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하는 행사다. 부산인권센터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공원 등이 주관하고 부산장애인인권연구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아시아인권연대 부산여성회 부산독립영화협회 등 다양한 인권문화단체가 동참, 인권영화 상영을 중심으로 연극공연, 체험행사 및 청소년 현장답사, 인권강연, 전시 등으로 마련됐다. 인권에 관한 독립영화 49편을 상영하는 영화제의 개막작인 <별빛이야기>는 올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제작한 옴니버스 인권 애니메이션으로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입시위주 교육문제를 꼬집은 박재동 감독의 <사람이 되어라>를 비롯해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여성, 외모, 이주노동자 문제를 그린 애니메이션 6편으로 이뤄졌다. 연극은 모두 3편으로, 폐막작인 <어머니의 노래>는 장애인 아이를 낳은 여성의 이야기를 절실하고 감동적으로 그렸다. 이밖에 <춤을 들지 않는 사람들-병력거부자의 인권> 등 인권강연과 손문상 화백의 이라크그림전 <바그다드를 흐르다> 등이 열렸다.

제5회 최계락문학상

부산의 원로시인 유병근 씨와 경남을 대표하는 아동문학가 임신행 씨가 제5회 최계락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병근 시인의 수상 작품은 최근 발표한 시집 『엔지세상』. 대상을 탐문하고 그에 적합한 언어를 찾아가는 시인의 열정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신행 씨는 『노랑할미새는 그 비밀을 알고 있을까?』를 비롯해 『우포늪에서 보내는 편지』 『하얀 아기 굴뚝새』 『우포늪에는 별똥별이』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발표한 동시집과 어른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시집 등으로 문학적 능력을 과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번 최계락문학상 시상식은 지난 11월 25일 국제신문 4층 소강당에서 열렸다.

광주 박진현 광주일보 기자

오지호 화백 기념관 개관

한국화단의 거목 고 오지호 화백(1905~1982)의 삶과 예술 정신을 기리는 '오지호 화백 기념관' (화순군 동복면)이 지난 11월 18일 개관했다. 오 화백 탄생 100주년을 맞아 문을 연 이 기념관은 지상 1층, 지하 1층의 연건평 200평(전시설 140평)규모로, 한국 화단에 큰 족적을 남긴 그의 예술혼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교육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념관 개관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고 오지호 화백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지난달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문을 연 유품기념관을 포함 2곳이다. 오지호 화백 기념관에는 오 화백 작품(복사본) 42점과 운보 김기창, 월전 장우성 화백의 그림, 아들인 서양화가 승우·승윤 씨의 작품, 조각가 윤영자, 김영중 씨 등의 작품 50여 점이 소장돼 있다. 12억 원의 예산(국비 5억 원·도비 4억, 군비 2억 원 포함)이 소요된 오지호 화백 기념관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지난 1996년 그의 생가터인 화순군 동복면에 첫 삽을 뜬 이래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수차례 지연된 것. 특히 당초 100평 규모였던 전시장을 140평으로 늘리면서 추가예산을 확보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사기간만 9년이 걸렸다. 또한 오 화백의 작품을 구입할 예산이 없어 진품그림을 확보하지 못해 개관이 몇 차례 늦춰지기도 했다. 결국 오 화백 가족이 개관에 맞춰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진품을 임대해오기로 함에 따라 궁여지책으로나마 개관기념전을 열게 된 것이다. 이때문에 오 화백의 기념관이지만 진품그림 한 점 소장하지 못한 '반쪽기념관'이라는 불명예를 면치 못하게 됐다. (문의 061-375-0101)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제1회 정윤성 음악제 성공리에 마쳐

출생지 진위 여부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제1회 정윤성 음악제'가 지난 11월 11~12일 성공리에 폐막했다. 규모면에서는 이

미 4년 째 열리고 있는 통영국제음악제에 크게 못 미치지만, 일단 광주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제 규모 음악행사로서 가능성을 보였다. 이틀간 3천 5백여 명의 관람객이 공연장을 찾아 정음성의 음악 혼을 기리는 데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해방 이후 이데올로기 대립을 보여 온 우리 사회에서 '공산당 노래'라며 경계했던 중국 혁명가의 음악을 연주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음악제에서는 정음성 선생의 가곡과 합창곡, 동요 등 40여 곡이 선보였다. 그를 주제로 창작된 가곡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국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에서도 관심이 높았으며, 관광객 360여 명이 음악제 관람을 위해 광주를 찾았다. 특히 이번 음악제를 위해 광주를 찾은, 정음성 선생의 딸 소제(小堤·63·중국 음대 교수) 씨는 "늦게나마 아버지의 고향 광주에서 국제 음악제를 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성공적 개최에 자신감을 얻은 광주 남구청은 "내년부터는 중국, 동남아시아, 프랑스 등 음악가들의 창작 작품을 공모해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예술인들은 제2회 정음성 국제음악제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기업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참여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 전남 추상미술 흐름 조명

구상미술의 텃밭인 호남지역에서 추상작가들의 입지는 어땠을까? 우제길 미술관(관장 우제길)은 지난 11월 12~24일까지 광주·전남 추상미술의 역사를 조망해보는 <회복전>을 가졌다. 2005년 문화관광부 복권기금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전시는 이 지역의 적박한 추상화단을 일구었던 선구자들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뜻 깊은 자리다.

이에 따라 이 전시는 광주 전남 추상미술의 형성배경과 그 특질을 살펴보는 동시에 당시 작가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용운을 필두로 고 양수아(1920~1972), 정영렬, 박상섭, 최충섭, 장지환, 김종일, 우제길 등이 주축이 된 현대작가 에쁘고회(현 (사)

에쁘고회의 전신)가 호남 추상화단의 계보를 이어온 주인공들이다. 이번 회복전에서는 양수아, 강용운 등 호남지역 추상화가 1세대의 작품과 함께 이들의 형식과 특질을 계승·발전시켜온 작가들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전시작 가운데에는 양수아 화백의 미공개 작품도 포함돼 있다.

의재미술상 수상 아산 조방원전

원로 한국화가 아산 조방원 화백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초대전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의재미술관에서 열렸다. 제10회 의재미술상 수상기념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먹산수의 이상과 여백의 미'를 주제로 근작 7점을 포함한 32점의 작품이 선보였다.

아산 선생의 먹산수의 본질은 불교의 선미가 느껴지는 문기(文氣)와 도교적 무위자연의 유희미(幽玄美)에 있다. 평소 그는 "먹색은 정신세계를 나타내고 채색은 물질세계를 나타낸다. 수묵의 세계는 외성(外性)을 추구하는 형상이 아니라 내성, 즉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회화"라는 신념을 지녀왔다. 이 때문에 아산은 발묵과 파묵 등 다양한 묵법을 통해 양감 넘치는 선미를 표현해왔다.

크고 아름다운 산이란 뜻의 호 '아산'(雅山)이 말해주듯 그는 사람만큼이나 산을 사랑한다. 산을 빼놓고 아산의 삶과 그림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의 그림의 중심엔 산이 있다. 그에게 있어 산은 인간이 함부로 범절할 수 없는 영기를 지니고 있으며 그 산속엔 모든 생명체에 기를 불어넣어주는, 천지의 영육이다. 아산의 산수에서 집이나 절, 마을 등 인간의 거처들이 모두 산의 기가 뭉친, 이른바 명당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그의 숭산사상을 뒷받침한다.

전북

도 휘정
전북일보 기자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펴낸 『판소리 사설전집』, 미 대학 교재로 활용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가 판소리 대중화와 세계화를 목적으로 올 초 발간한 『판소리 사설전집』이 미국 뉴욕주립대 버팔로 캠퍼스

교재로 선택돼 화제가 되고 있다. 『판소리 사설전집』은 판소리 다섯바탕 원문에 주석을 달아놓은 '교주본'과 원문을 현대어로 풀어놓은 '현대어역본', 사설의 난해한 부분을 개작한 '현대화사설본', 영어로 번역해 놓은 '영역본' 등 총 15권. 이 중 '영역본'이 뉴욕주립대 교환교수로 가 있는 박재익 교수의 '한국문학 번역' 수업 교재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업은 영어영문학과와 한국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목으로 미국인 7명과 재미교포 7명이 수강하고 있다. 향가, 시조, 가사, 민속설화, 단편소설, 판소리 등 고전문학을 번역하는 수업으로 판소리는 11월 교육과정이다. 특히, 판소리 다섯바탕 중 <춘향가>는 기말 보고서까지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은 『판소리 사설전집』 번역 작업에 참여한 박승배 씨(전북대 국제교류부)에 의해 우연히 알려졌다. 박씨는 "판소리 세계화를 목적으로 작업한 결과물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 같아 기쁘다"며 "박교수와의 교류를 통해 『판소리 사설전집』의 보완점을 확인하고 판소리 번역 작업에 대한 조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악성 옥보고 거문고 축제

'백악지장(百樂之丈)'으로 꼽히는 거문고. 천오백여 년의 세월동안 민족의 희로애락과 함께했던 거문고 입지가 최근 약화되고 있다. 거문고를 공부하려는 국악도가 줄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연주무대도 감소하고 있다. 이에 거문고가 지니는 악기로서의 가치와 음악성을 조명하고 대중화와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9월 남원에서 발족한 (사)악성 옥보고 기념사업회(회장 강대인)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악성 옥보고 거문고 축제>를 열었다. 지난 2003년 (사)민속국악진흥회와 남원국악협회가 주최한 옥보고 거문고축제가 이어지는 두 번째 자리. 거문고축제는 거문고음악의 발전과 연주활동 확대 등 거문고 대중화와 저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거문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와 거문고 경연대회, 기념공연, 남원 지역 국악유적지 답사 등이 이어졌다. 강대인 회장은 "거문고 무료연수와 창작음악 위촉, 유적지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거문고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민축제



시인이여.

절실하지 않고, 원하지 않거든 쓰지 말라.

목마르지 않고, 주리지 않으면 구하지 말라.

스스로 안에서 차오르지 않고 넘치지 않으면 쓰지 말라.

— '시인 선서' 中

가을 깊숙한 곳. '외로운 이, 가난한 이, 그늘진 이, 핍박받은 이, 영원 쪽에 서서 일하는 이의 맹우(盟友)' 시인들이 전주에 왔다. 현대시 100년과 제19회 시의 날을 기념하는 한국시인협회(회장 김종해)의 '전주시민축제—시여, 노래하라!'가 지난 10월 29일과 30일 전주한옥생활체험관에서 열렸다. 시를 짓고 읊는 일. 그것은 '이 지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위안하고 보다 높은 쪽으로 솟구치게 하는 가장 정직한 노래'다. 소술한 가을 바람에 200여 명의 시인들의 감성엔 차고 맑은 기운이 차오른다. 김종해 회장의 '시인 선서'를 시작으로 김종길, 김남조, 최승범, 천양희, 노항림 등 한국 문단

을 대표하는 시인들의 자작시 낭송이 이어졌다.

전주는 이 땅의 시인들에게 감흥으로 다가갔다. 김종길 시인은 "전주는 가장 문화적인 도시"라며 "전주에 와서 30년 만에 문화인이 된 듯하다"고 말했고, 정진규 시인은 "옛날에 전주 덕진공원을 혼자 찾았다가 쓴 시"라며 <플러그—알2>를 낭송했다.

음산한 목소리, 힘있는 몸짓. 하재봉 시인은 고향에 돌아온 마음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로 끝이 나는 시 <귀향>을 낭송했다. 전주가 고향인 이기림 시인에게 한옥마을은 어린 시절 놀이터였다. 전통성당 뒷뜰과 경기전을 그는 여전히 가슴 속에 품고 있었다. 이근배 시인은 전주를 111년 전 전봉준이 혁명을 일으켰던 땅으로 기억했다. 그가 낭송한 시 역시 '전봉준'을 주제로 한 <겨울 동진강>. 시인들에게 전주는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 말과 우리 소리의 만남, 시와 국악의 만남은 시에 날개를 달았다. 박윤춘 씨는 황진이의 <녹수청산>과 유치환의 <그리움>을, 서정춘 시인은 자작시 <죽편>을 시창으로 불렀다. 안숙선 명창은 "여러 시인들의 공력 덕분에 우리 시로 국악을 만드는 시도를 할 수 있었다"며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가락을 붙여 초연했다.

전주시민축제에서는 시에 대한 시인들의 생각도 만날 수 있었다. 지난 30일 오전에 열린 세미나 '시와 대중과의 거리, 어떻게 좁힐 것인가'에서 장경렬 서울대 교수는 "무엇보다 시인들이 쉽고 아름다우면서도 시적 품위와 가치를 지닌 '좋은 시'를 써야 한다"며 "우리 교육에 시 암송과 시 쓰기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학생들에게 시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교사 양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찬경 시인은 "시는 예술적 감상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실용성을 지니면 바람직하지 않겠다"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예술로서 독자들에게 시를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달자 시인은 "뼈꺼리는 우리들의 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데 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7회 백석문학상 수상한 정양 우석대 교수
"수업시간에 백석의 '여우난골죽'을 감상하고 나왔는데 쉬는 시간에 수상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좋다가, 이 나이에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게 좀 거면쩍기도 하더군요." 시집 『길을 잃고 싶을 때가 많았다』로 '제7회 백석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정양 우석대 교수(63). "오랜 세월 에 걸쳐 다독겨려온 양심과 고독을 마치 다정한 이웃과 이야기하듯 풀어내고 있다"는 평을 받은 그는 "상은 내가 탄 것이 아니라 시집이 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시인은 우리 문화 속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과 친해지는 것들에 대해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백석의 시에도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삶의 모습에 대한 강한 애착이 리얼하게 표현돼 있지요. 그런 점에서 제 시와 백석의 시가 어느 부분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는 "누구 문학상이 아니어서 더욱 좋다는 인사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한 때 미당의 시에 빠져있었지만 시 속에 역사의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실망했던 그는 주변의 인사말에 속으로는 씩씩했다고 고백했다. "예술성에 매달릴 나이도 아니고 꽤 부릴 나이도 아니지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와 답안지 작성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듯, 시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고 싶어요." 그는 "시의 예술성이 훼손당하더라도 쉽게 풀어 쓰고 싶다"고 했다. 손을 대면 아무래도 맛이 떨어지지만 아직도 고쳐야 될 시들이 많다는 그는 수상시집을 3쇄까지 찍어내면서 몇 편의 시들을 고쳐 썼다고 말했다.

김제에서 태어난 정 교수는 19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197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이 당선돼 등단했다. 제9회 모악문학상, '제1회 아름다운작가상' 등을 수상했으며, 시집으로는 『까마귀떼』 『수수강을 씹으며』 『빈집의 꿈』 『살아있는 것들의 무게』 『눈 내리는 마을』 등이 있으며, 판소리평론집 『판소리 더듬의 시학』과 역서 『한국 리얼리즘 한시의 이해』 등이 있다.

제1회 도화지 전통가마축제

"내 재떨이를 하나 만들었는데 말야. 잘 만

들었나 모르겠네.”

사시사철 도자기가 피어나는 땅 ‘도화지(陶花地)’. 가을걷이에 허리 펼 날 없던 동네 어르신들도 ‘도화지’가 어떤 곳인지 궁금했던 모양이다. 도자기를 빚는 예술가들 앞에서 굽은 손으로 재떨이를 만들려니 괜히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 쑥스럽다.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임실군 관촌면 신전마을 도화지 도예문화원에서 열린 ‘제1회 도화지 전통가마축제’. 가마에 처음 불을 붙이는 가마진입식을 시작으로 18m 길이의 전통가마 속에서는 도자기 500여 개가 1,260℃의 불길을 이겨내고 단단하게 익어 가고 있었다. 2박 3일 동안 밤 새워 불을 때고 있는 이병로 (사)전북향토문화컨텐츠산업진흥회 이사장의 얼굴은 반짝이 됐다. 그레도 그는 “직업실을 연 지 4년 만에 가장 많은 손님들이 다녀갔다”며 함박웃음을 짓는다.

평지에 도자기를 놓고 주변에 불을 피워 토기를 구워내는 전통방식 ‘노천소성’과 불에 녹은 유약 위에 재와 톱밥, 검은 연을 먹이는 현대방식 ‘락구소성’을 비교해 보는 시간도 마련됐고, 지역 도예가들은 물레돌리기와 옹기 만들기 등을 관람객 앞에서 시연했다. ‘사랑의 커피 물레대회’ 가족 대항 도자기 만들기 ‘나만의 그릇 만들기’는 직접 도공이 되어보는 체험 프로그램. ‘지역 도예작가 초대전’과 틈틈이 이어지는 공연들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크고 작은 지역 축제 속에서 전통가마축제는 첫 날에만 7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축제 컨셉이 프로그램 구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두 아들과 함께 ‘풍경만들기’를 체험하던 정현주 씨(37 전주시 송천동)는 “시원한 바람과 가을 단풍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학교나 집에서는 체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축제가 즐거운 것은 넉넉한 먹거리 때문이기도 하다. 황토물에 풀어놓은 장어를 잡아 즉석에서 구워먹고 뜨끈뜨끈한 소머리국밥과 방금 부쳐낸 화전에 막걸리 한 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대접하는 시골의 따뜻한 정도 덩어로 없었다.

청출어람을 꿈꾸며

한 땀 한 땀의 바늘새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그려진 도안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정각과 질서를 몸에 익히고, 고운 색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수놓으며 인생을 배워나가는 이들이 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28호 자수장 강소에 선생과 그의 제자들로 이뤄진 ‘한수회’가 ‘청출어람(靑出於藍)을 꿈꾸며’를 열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주시가 여성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강의에서 만난 강소에 선생과 제자들의 인연은 수틀과 작은 바늘구멍과 씨름하며 더욱 깊어졌다. 4년 전 창립된 ‘한수회’의 회원들은 평균 6~7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전수자이며 강선생의 큰 딸인 전경례 씨와 20여년 전 배움을 시작한 이형숙 씨를 비롯, 임춘도, 서정주, 정숙, 김윤주, 손화현, 이순자, 최미애, 도정지, 김순옥, 김정자, 안경님, 유성주 씨 등 꾸준한 작업으로 유물 복원에 애쓰거나 과묵하게 수놓는 것만을 재미삼기도 하는 이들이다.

꽃 하나를 수놓더라도 기법과 색의 선택에 고민이 많았다는 회원들은 전시를 ‘궁중의 화려함’과 ‘신랑이 있는 사랑방’ ‘신부가 있는 안방’ ‘우리들의 살림살이’로 나눴다. 서른 가지가 넘는 기법을 고루 선보이고 때로는 실을 꼬이면서 놓는 수들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다.

정성 어린 작품을 속에서 역시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강 선생의 솜씨다. 명성황후가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장을 백골에 모란과 공작새, 오리와 갈대 등을 수놓아 복원한 ‘전 명성황후 장’ ‘壽’ 福 360자를 여러 가지 형태로 도안해 수놓은 ‘백수백복문자수병’, 수놓은 부분이 뒤로 가도록 착용한 ‘후수’, 화초도가 수놓아져 있는 ‘가마’ 등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윤희롭게 전통을 이어가려는 장인의 정성이다.

— 자운 강소에 인터뷰

“요즘 세상 참 편해졌지요. 그러나 아쉽고 그리운 게 있어요. 예전에는 생활용품들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고유한 멋이 있었지만, 요즘은 자동화된 기계로 만들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아직 기계에 빼앗기지 않은 소중한 일들이 우리 손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자운 강소에 선생. 이제는 수를 놓은 만큼 몸을 쉬어줘야 할 정도로 기력이 떨어졌지만 힘들기 보다는 수를 놓는 즐거움이 더 크다. “전통자수의 세계는 폭 넓고 속이 깊다”고 말하는 그는 한 땀 한 땀 수를 놓으며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켜나가고 있다. “지금은 귀한 것이 됐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는 자수를 배워야 집값을 갈 수 있었어요. 내년쯤 전수관을 짓고 나서 첫 전시를 열고 싶었지만 일이 만만치 않아서 자리를 조금 일찍 마련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 두고 서른두 살 이후 본격적으로 자수에 매달려 온 그는 내년이면 여든이다. “수놓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에 ‘자운 전통자수연구소’를 열고 싶지만, 터만 잡아놨지 길이 나지 않아 여태 개관을 하지 못했다. 평생 자수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그에게는 제자들과 함께 여는 이 전시가 첫 번째 개인 전이나 마찬가지다. 옛 사람들의 솜씨 앞에서 그는 여전히 수줍고 서툴다는 생각뿐이다. 현재 기전대 평생교육원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출강하고 있다.

제주

강태유
제민일보 기자

제주도내 박물관 · 예술계 원원 전락

제주도내 박물관이 문화예술계에 전시실 등을 개방,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원·원 전락’을 구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울 들어 전시실 · 강의실을 도내 예술계에 개방하여 공연과 전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박물관은 이를 기존의 이미지와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술계는 저렴한 예산으로 공연이나 전시를 개최, 관람객과 만나고 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일반 대관에 이어 각종 참여 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 이를 통해 박물관은 딱딱하다는 이미지를 지우고 도민들의 관심과 발길을 한층 끌어 모으고 있다. 이에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도 올해부터 자체적인 기획 전시가 없는 경우 일반 전시를

위해 특별전시실을 문화예술계에 개방해 호응을 얻고 있다. 첫 시행인데다 구체적인 대관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다소 혼선이 있기는 하지만 시도 자체는 일단 합격점을 받은 상태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경우 민속자연사의 테마를 갖는 문화예술인들의 전시를 통해 1년 내내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획로 활용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역시 전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다 무엇보다 월 7~10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현재 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한우리전>이 열리고 있으며, 계속해서 전시 문이 이어짐에 따라 내년에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 · 관이 함께 하는 제주도박물관협의회가 구성돼 있어 평가 여부에 따라 협력을 통한 생존법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갤러리하리, 취리히아트페어와 독점계약

갤러리 하리(관장 이영재)가 최근 취리히아트페어(Art Zurich)와 한국 독점제휴 관계를 맺었다. 갤러리 하리와 독점계약한 취리히아트페어는 90년대 유럽의 바젤아트페어, 쾰른아트페어, 아르크 등 부유한 아트페어들에 뒤이어 새로운 미술시장을 겨냥하기 위해 지난 98년 창설된 아트페어. 부뤼셀아트페어, 파리아트페어, 유럽아트 등과 함께 여러 신생 아트페어들 중에서도 성공한 아트페어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독점계약은 타 분야는 그 예가 많으나, 국내 미술계에서는 극히 드문 사례로 세계적인 아트페어와 손을 잡았다는 것은 제주화단에서도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10월 취리히아트페어에 김현숙, 김만수(이상 제주작가) 석철주, 노재승, 고해련, 신철 등 국내 화가 16명을 이끌고 간 갤러리 하리는 취리히아트페어 발간지 「Art International Zurich」에 가장 먼저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후 취리히아트페어 관계자들과의 논의 끝에 취리히아트페어와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성사됐다. 갤

러리 하리의 이영재 관장(49)은 지난 99년부터 취리히아트페어에 한국작가들을 꾸준히 소개해 취리히아트페어 관계자들로부터 돈독한 공신력을 얻어 왔다. 취리히아트페어 볼프 보티첼리 회장은 “이영재 관장이 작품을 꼼꼼하고 정확히 보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지난 6년간 성실하게 작가들을 소개해온 점이 이번 독점계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재 관장은 “취리히아트페어와 손을 잡고 양자의 공동 번영을 추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제주작가를 포함한 국내작가들은 물론, 일본 · 대만의 작가들을 적극 발굴하고 소개시켜 아시아를 대표하는 갤러리로 우뚝 서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주사건연구소, <바람섬의 울림전> 개최

제주사건연구소(소장 송동효)이 지난 11월 11~20일 갤러리 제주아트에서 제주사건 예술제를 위한 <바람섬의 울림展-2005 제주사건, 오늘의 탐색>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사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많은 탈바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각 분야 사진단체 작가들과 함께 하는 독특한 전시회다. 이번 전시에는 줄곧 자연환경, 전통, 문화 등 각 마을의 풍경을 공동으로 담아온 제주사건연구소단체 흑백의 풍광사진들을 위주로 셔터 소리와 함께 흑백사진의 깊고 묵중한 매력을 전한다.

모두 50점에 달하는 작품들 중 중간이 오름, 소테우리, 웅기장이, 허벽장, 들불놀이, 靄景(설경), 안개 낀 들판의 소가, 갈천에 30여 점의 사진을 끼워 넣은 작품 등 컬러사진 10여 점도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는 단순히 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제주의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플루트 주자 허대식 씨(제주대 음대 교수)의 전람음악회를 비롯해 국악의 밤, 클래식 기타의 밤, 시낭송, 퍼포먼스 등 난장을 벌여 관심을 끌었다. 공연에는 김형진, 감미영, 윤정애, 한재준, 양용선, 문인성, 양은석, 문용석, 안미진, 조영옥, 김수열, 변종수, 김경률 등이 참여했다.

20년 넘게 <배비장전>을 무대 올린 정남극장

20년 넘게 52번의 공연을 통해 다듬고 손질해온 연극을 53번째 무대에 올리는 극단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제주연극의 산증인과의 같은 극단 정남극장으로 작품은 <배비장전>이다. 극단 정남극장(대표 강한근)이 또다시 연극 <배비장전>(강한근 각색 · 연출)을 들고 돌아와 지난 10월 15일부터 제주도내 일원에서 관객과 만났다.

<배비장전>은 지난 1980년 제주도내 최초로 제주시와 한국연극협회제주도지부에 정식 등록된 제주 최초의 전문 극단으로 현재 도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연극인을 배출해낸 제주연극계의 어머니 격인 정남이 20여 년을 함께 지내온 작품. 첫 공연은 1981년 3월 창단 1주년 기념공연작품으로 올려지면서다. 이후 극단 정남극장만의 고정 레퍼토리로서 도내 · 외를 아우르며 52회에 걸쳐 손질되고 무대화됐다.

극단 정남극장이 이처럼 연극 <배비장전>에 애착을 갖는 이유는 바로 <배비장전>의 무대가 제주이고, 등장인 모두가 제주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옛 제주인들의 정서가 그대로 반영되고 제주의 독특한 언어 등이 녹아든 <배비장전>은 향토자료이자 문화유산으로서 널리 알리고 보존해나가기야 한다는 게 강한근 대표의 20년 배비장전을 사랑하는 이유다. 이어도민속예술단이 참여한 53회째를 맞는 이번 작품은 구성진 제주민요를 곁들여 현대적이면서도 더 완연해진 제주색을 선보였다.

월간

『문화예술』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보다 앞서가는 잡지, 질 높은 잡지, 알찬 잡지를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부드러운 시선보다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좋은 잡지' 라는 결실로 보답하겠습니다.

▶2005년 한 해도 월간 『문화예술』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에 의견을 주실 분을 위해서...

- 원고마감은 매월 15일입니다.
- 원고는 우편이나 FAX, E-Mail 또는 본원 홈페이지(게시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원고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또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소 : 우 110-766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미디어팀
- 전 화 : 02-760-4568
- FAX : 02-760-4706
- E-Mail : magazine@arko.or.kr
- 홈페이지(게시판) : www.arko.or.kr

원고가 『문화예술』지에 게재되는 분께는 『문화예술』지 6개월분 무료구독 기회를 드립니다.